

# 안달루시아의 도시들: 안달루시아에서 마그레브까지



강사: **김중순** 교수

계명대학교 독문과를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비교종교학 석사 학위를, 짜르부뤼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. 현재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로 실�크로드 중앙아시아 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, 국제 저널 *Acta Koreana* 와 *Acta Via Serica*의 편집장을 겸하고 있다. 샤머니즘을 비롯한 고대종교와 문명교류사를 연구하고 있으며, 주요 저서로는 *Birdman: Pathfinder of Korean Shamanism*, 『문화의 이해와 다문화교육』, 『이슬람, 그 반역의 역사』, 『황으로 읽는 문명 이야기: 중반구와 글로벌 르네상스』 등이 있다.

.....

전 세계는 문명 간의 대립, 종교 갈등 등으로 얼룩져 있다. 그러나 이질적인 문명과 종교들이 항상 대립하고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. 화해하고 공존할 수 있으며, 공존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유산을 만들어 낼 수 있다. 스페인의 남부지역인 안달루시아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. 이 지역을 약 800여년간 지배한 아랍인들이 이슬람문화를 남겼으며, 그 토양 위에서 안달루시아 문화가 꽃필 수 있었다. 당시 안달루스의 교역은 지중해권, 이슬람권, 아프리카-마그립 등 3개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, 이베리아 반도 북부의 기독교 통치 지역과는 육로로 연결되어 있었다. 중세 안달루스 사회는 무슬림, 기독교도, 유대교도 등이 상호 공존하며 다양한 인적 구성과 계층 간의 위상을 보여주었다. 이 시기는 안달루스 이슬람 문화의 절정기였다. 좋은 기후와 풍성한 자원과 자유로운 학문적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개방적이고 관용 정신이 숨 쉬는 사회로 이행되었다. 그들이 주도한 그리스 고전의 번역은 유럽 르네상스의 기반이 되었다.